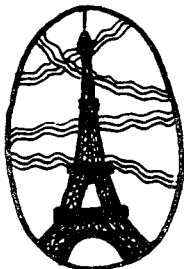


## 世界 환경보전 활동의 중심지

# 나·이·로·비 (연재 II)

李斗護 / 환경청 次長

비행기는 천지간의 지  
척을 분간키 어려운 칠  
혹같은 암흑을 비집고  
계속 북으로 북으로  
나른다.



이날밤 비행기로 귀국길에 오른다고 나의 대학선배인 崔東鎭대사와 그의 부인 全女史(나의 대학 1년후배)는 그간 두어차례 대사관저에서 한식대접을 베풀어 주었던만 이날 저녁에는 또다시 우리 일행과 나의 대학후배이자 우리 대표단의 일원인 현지대사관의 崔鍾武참사관을 국제회의센터(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지하의 天天酒家에 초대하여 기름진 중국음식으로 포식을 시켜 주었다.

나는 崔대사님 부부와 작별을 하고 밤 10:59 출발의 프랑스항공(Air France) 482편을 타기 위해 밤 9:30경 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밟는데 키가 크고 시커먼 흑인 세관원이 휴대용 가방을 검사하고는 입국시의 외화소지신고서와 환전증명서 및 쓰다남은 화폐와 현지화폐를 보여달라고 한다. 나는 입국시의 외화소지신고서사본을 제시하면서 현지화폐는 한푼도 없고 그간 여러 차례의 환전증명서는 탁송한 가방속에 들어있다고 했더니 -실은 탁송한 짐도 없고, 그간의 환전증명서는 찢어버렸다.- 이친구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이리뒤적 저리뒤적 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중국에 가서는 “앞으로는 환전증명서도 꼭 소지하라”는 주의를 주며 들어가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번 해외나들이를 했지만 환전증명서와 쓰다남은 외화까지 보여달라는 공항은 이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단한번 1984년 10월 중공방문을 마치고 상해공항에서 출국시 외화소지신고서 사본을 잃어버려서 20원을 내고 재발급받은 일은 있었지만 ...

탑승구에서도 탑승권 한장이면 됐지 또 무슨 티켓이 필요하다고 티켓까지 제시하라고 한다.

AF(에어프랑스) 482편 보잉 747機는 예정된 제시간에 나이로비 국제공항을 이륙했다. 한밤중이라 비행기는 천지간 지척을 분간키 어려운 칠혹같은 암흑을 비집고 계속 북으로 북으로 날는다.

기내에는 승객이 많지 않아 빈자리가 많았다. 내 좌석 옆자리도 두자리나 비어 두 좌석의 팔받침대를 뒤로 재키고 보니 세 좌석이 한자리가 되었다. 승객이 만원일 경우에는 그 좁은 좌석 하나에 몸을 끼우고 그것도 옆 좌석의 승객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는 잠을 깨우기가 미안스럽고 죄송스러워서 便所출입도 어려울텐데 과외로 두 좌석이나 더 넓게 쓸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 넓은 우주공간에서 이 좁은 기내좌석일 망정 이처럼 세 좌석이나 내가 앉고 누울 수 있다니 이는 일등석 못지 않은 나의 우주요, 나의 세계가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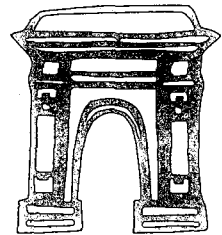
새벽 6 시반경 아침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기내방송에 잠을 깨어 기창의 커튼을 올리니 마침 일출시간이라 먼 雲平線의 구름이 반쯤은 검푸르고 반쯤은 붉게 물들어 참으로 아름다운 형언할 수 없는 天空의 조화를 露문한다. 우리 인간을 일컬어 滄海之一粟이라 했지만 이 기내에 사로잡힌 우리 승객들의 신세는 滄海之一粟처럼 정처없이 유동할 수도 없이 좁은 좌석에 묶이어 때만 되면 코앞에 들여다미는 기내식을 받아먹어야 하니 이는 마치 肥肉午 사육사업장과도 같다는 느낌이 든다.

1987년 6월 13일 아침 7시 15분에 드골공항에 도착한 나는 지난 6월 5일 파리로착시 李根德 KAL 여객운송과장과의 약속에 따라 金命勳이라는 한국유학생의 안내를 받게 되었다. 김군은 파리 제 8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하는 제 3년차생이다. 마침 김군은 카메라를 갖고 나오지 않아 그의 친구인 같은 대학의 崔準壽군을 불러내어 3인이 동행이 되어 같은날 오후 2시 KAL 902편을 탑승할 때까지 파리 시내 관광길에 나섰다.

우산없이 옷젖기가 알맞을 정도의 보슬비가 내리는 시가지를 김군의 중고차에 몸을 싣고 우리 일행은 맨먼저 상원의회가 자리잡고 있는 룩셈부르크 공원내의 元祖가 아닌 元姑 자유의 여신상(stature of liberty)을 찾았다. 이 여신상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어느 무명조각가에 의해 제작 건립된 것으로서 그 크기는 실제의 等身大이고 색깔은 청동색이다. 이것 말고 파리 시내에는 또하나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 1886년 미국 독립선언 1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에펠탑(Effel tower) 건축가 구스타브 에펠(Gustave Effel)이 현재 뉴욕灣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기증하자 당시 파리 시내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이 그 답례로 또 하나의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하여 세느(Seine)강변 미라보(Mirabou) 다리앞에 세웠다. 그리하여 전세계 자유의 여신상은 이곳 파리에 2基, 미국 뉴욕만에 1基 등 도합 3基가 된 셈이다.

김군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1986년) 미국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때 이곳 룩셈부르크 공원내의 元姑 자유의 여신상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고 속을 썩히다가 7~8개월 후에 돌려주면서 파리 시내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모두 없애달라고 요청했다는 일화가 있었다고 한다.

기내 커튼을 올리니 먼 雲平線의 구름이 반쯤은 검푸르고, 반쯤은 붉게 물들어 참으로 아름다운 天空의 조화를 露문한다.



파리의 명물인 에펠 탑은 언제봐도 우아하기가 가히 조형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러차례 구경도 하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은 바 있지만 여기까지 와서 凱旋門을 다시 한번 안보고 갈 수 없어 개선문을 찾았다. 개선문의 원명은 불어로 “L'Arc de Triomphe” 즉, “승리의 아취”라는 뜻으로 1836년 루이 필립(Louis Phillippe) 왕때 완성되었다. 이 문을 중심으로 동쪽의 그 유명한 샹제리제(Champs Elysees) 거리를 비롯하여 12갈래의 길이 뻗어나가고 있다. 문의 높이는 50m인데 정상까지 오르는 엘리베이터장치가 있으며 네 기둥중 샹제리제 거리에서 바라보는 좌측 기둥에는 나폴레옹과 지원병들의 상이 조각되어 있고, 우측 기둥에는 프랑스 애국가인 라 마르세이유(La Marseilles -대혁명당시 혁명곡이 부르던 노래)를 상징하는 조각이 새겨져 있다.

4각 아취의 중앙에는 1차대전(1914 ~ 1918) 당시 전사한 무명용사중 1명의 무덤(1920년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1년 365일 계속 吊火를 피우고 있고 매일 오후 6시에는 헌화식을 올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파리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매년 6월 25일에는 여기에 헌화제를 올린단다.

귀국하는 KAL의 출발시간이 오후 2시이기 때문에 파리체제시간이 불과 6~7시간 밖에는 되지않아 이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파리지내 일주관광은 역시 세느강의 유람선으로 走馬看山이 아닌 乘船看景이라고 생각되어 -그간 수차 이곳 파리를 다녀갔지만 막상 유람선을 타본 일이 없기도 하여 -이것을 '한번 타보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첫배가 떠나는 시간이 오전 10시라서 아직 1시간 반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기에 그동안 에펠 탑, 샹미셀거리, 앙바리드 교회 등을 살펴 보았다.

에펠 탑은 언제봐도 대표적인 파리의 상징물이며, 그 우아하기가 가히 조형미의 극치라 할 수 있다. 탑 아래쪽 정면으로는 넓고 긴 잘가꾸어진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잔디밭이 끝나는 맞은 편에는 작은 키에 영특했던 젊은 나폴레옹이 다니던 공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샹미셀거리는 유학온 대학생들의 하숙촌으로서 노변에는 학생촌답게 커피숍, 카페테리아 등 이들 학생들의 휴식처가 즐비하게 위치하고 있어 주말이면 이들 유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TV도 보고 담소도 즐긴단다. 나의 관광안내자인 김군과 최군도 이 지역에 하숙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개선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파리에서 가장 부촌인 라틴쿼터(Latin Quarter)가 있고 거기에서 또 조금만 더 가면 저 유명한 실존주의철학자 샤프트르(Sartre)와 보바르(Bobare) 부인이 대화를 즐기며 연정을 불태우던 오 두 마곳(Aux deux margots <두개의 담배꽂초라는 뜻>)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의 커피 한잔값은 다른 카페보다 무려 8배나 비싼 25프랑씩이나 받는단다.

이곳에서 지척지간에는 세계만방의 미술학도들이 동경해 마지않는 프랑스국립미술학교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이 학교를 졸업해야만 저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을 그릴

자격을 인정받는다라는 풍문도 있다.

이제 유람선 탈 시간도 얼마 남지않아 마지막으로 앙바리드 교회를 찾았다. 이 교회는 원래 1차대전당시 부상병 숙소로 사용되었으나 19세기 중엽 나폴레옹이후 19년만에 그의 시신이 세인트헬레네에서 이 교회 지하로 옮겨온 뒤부터는 이나라 VIP들의 무덤이 되었으며, 현재는 군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으나 드골(De Gaulle)이 대통령 재임시 유명한 문인으로서 문부상이던 앙드레 말로에게 “내가 죽은후 어디에 묻히는 것이 좋겠는가”고 물었을 때, 앙드레 말로가 대답하기를 “각하! 당연히 앙바리드사원에 묻혀야지요”라고 대답하니 드골이 크게 화를 내면서 “내가 죽어서까지 나폴레옹 밑에서 죽어 지내란 말이냐”고 하면서 그의 고향땅에 묻히기로 결정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드골은 사후 거기에 묻히지 않고, 그의 부인과 함께 그의 고향땅의 凡夫凡婦의 무덤속에 묻혀 있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세느강의 유람선을 탈 시간이 다 되었다. 세느강변에는 유람선 선착장이 세곳 있다. ① Pont D'inea ② Pont Neuf ③ Pont De L'Alma 등이 이들 선착장이다.

나는 오전 10경 콩코드광장 근처에 있는 Pont De L'Alma에서 BETAUX-MOUCHES 라는 이름의 유람선을 탔다. 이 배는 노트담(Notre-Dame) 사원을 지나 세인트루이스섬(Ile St. Louis)을 돌아 승선지점을 거쳐 에펠탑 정면에서 돌아 다시 승선지점에 와당은 약 1시간半정도 소요되는 유람선이다. 이 배의 일주코스 중간에는 12세기에 축조된 노트담의 사원·자유의 여신상 등 무려 40여곳의 문화재들이 제각기 독특한 고유가치를 지니고 배치되어 있다.

우리 한강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으로 대단한 관광자원이다.- 영국런던의 테임즈강변이 그러하고, 서독의 라인강변이 또한 그러하다.

이 세느강변에 현재의 이 제방은 나폴레옹 3세때 쌓았다고 하며 현재의 파리시내의 도로체계는 150년전의 오스만(Osman) 남작이 파리시장으로 재직시 설계되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마차정도가 고작이었을텐데 150년전에 이미 오늘날의 자동차의 홍수를 예견하여 이같이 넓은 도로를 설계하다니 프랑스민족(Gaule 쪽)의 미래에 대한 안목은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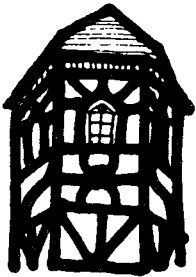
세느강은 평균수심이 10m정도이며 하폭은 대부분이 100m 좌우간이나 노트담사원이 위치하고 있는 섬 아랫쪽 兩水 合水地點(Pont de Art 바로 위)이 269m로서 가장 넓다.

그리고 세느강을 가로질러 건너는 다리는 가장 중앙지점에 놓인 콩코드다리(Pont de Concord)를 비롯해서 모두 34개나 가설되어 있는데 이들 교량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설계되어 있고, 양쪽 난간의 조각들 또한 각기 달라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세느강변의 문화재들은 우리의 한강변과 비교할 때, 비교치 못할만큼 엄청난 관광 자원이었다.



프랑스의 쓰레기 수거 방식은 개똥만 따로 수거해갈 정도로 분리수거가 완벽해 대단히 선진적이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다리는 1910년 帝政러시아(Russia)가 프랑스와의 우호증진을 다짐하기 위해 건설해 주었다는 알렉산더 3세 다리(Pont Alexander III)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교량의 조형미가 아름답고 그 역사가 문화제적인데 반해 이들 다리의 兩岸 언덕만이는 거지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마침 비가 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거적을 덮어쓰고 자고 있거나 웅기퉁기 모여앉아 뭇가를 먹고 있는 거지들이 어느 다리 밑 할것 없이 10여명 이상은 되어 보였다.

나는 동행한 김군에게 웬 거지가 저렇게 많냐고 했더니, 김군 왈 “이곳 다리에는 거지가 많다”고 하면서 부연하기를 이들 파리의 거지는 보통 3개 국어를 하며 보통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철학적이고 문학적이란 한다. 그 이유는 이들 거지는 여름이면 오늘 보는 것처럼 세느강 다리 밑에서 살다가 추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남으로 이동하여 이태리에서 살거나 아니면 도서관, 영화관, 유기장, 비데오, 목욕탕 등 온갖 문화·휴양시설이 무료로 제공되는 뽕뽕두센타에 모여 책을 읽거나 영화나 비데오 프로그램을 보고 지식을 얻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말에 3일만 구걸행각을 해보면 평생 거지생활을 못면한다고 하더니 이같은 문화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니 이 복잡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거지생활 단할 사람 누가 있겠는고…?

그리고 이 세느강 兩岸에는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경 6 km밖에 되지 않는 파리시 관내의 230만 인구가 배출해 내는 생활하수가 총연장 2,200 km나 되는 지하 하수도를 통해 이 兩岸의 관거로 배출된다고 한다. 반경 6 km 이내의 면적에 총연장 2,200 km의 지하 하수도의 건설이란 이 또한 참으로 대단한 미래지향적 업적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국민의 위대성은 바로 이런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방식 또한 대단히 선진적이다. 철저한 분리수거제도에 의해 수거 운반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개똥만 수거하는 소형차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운반차량 등 장비도 소형 오토바이형에서 대형 덤프트럭, 콘테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구류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은 시당국에 전화를 걸면 따로 특별차량이 동원되어 싣고 가게 되며, 이 경우에는 따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아침 7시 15분 드골공항 도착으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주말간산격으로 파리 시내 관광을 마친 나는 오후 2시에 예약된 대한항공(KE) 902편에 몸을 실었고 同機는 예정보다 약 30분 늦게 이륙했다.

해외 나들이때마다 자주 느끼는 짐때난 나그네의 일종의 노스탈자 인지는 몰라도 이나라, 저나라, 이도시, 저도시, 이비행기, 저비행기를 분주하게 갈아타 가면서 끊임없는 긴장으로 공항과 호텔을 체크

인 (Check in) 체크인(Check out)하다가 마지막 귀로에 내나라 비행기인 KAL을 타고나면 KAL機는 곧 내 고향이요, 내집 안방이 된다.

그렇게 붉지도, 그렇게 희지도, 또 그렇게 누르지도 않은 잘 구어진 낫익은 피부에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지지도 않고 약간 느슨한 편이면서도 어딘가 정감을 느끼게 하는 우리 한인들의 얼굴빛, 눈빛, 그리고 귀에 익은 우리말! 이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의 비행기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KAL機 내에서 우리 한인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게다가 승무원 아가씨들의 한복차림과 기내방송(이어폰)에서 「갑돌이와 갑순이」, 「팔도강산」 등의 음악이 흘러 나오면 제아무리 목석이더라도 그간의 피로가 싹 가시고 생기가 돌 수밖에...

이쯤해서 끝을 맺고자 한다.

(※ 케냐 나이로비의 이모저모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85. 6. 환경청 간행 본인의 "유엔환경계획(UNEP) 제 13차 관리이사회 참가보고서 제 167면~194면의 VI 외국출장견문소감을 참고하시기 바람). \*

KAL만 타면 그간의 여독이 싹 가심은 한인들이만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 새/기/술/새/상/품

# 쓰레기 걸러내는 해변 청소기계 모래에 공기의 세균감염 예방

이 해변 청소기계는 단순히 모래표면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밭을 약 10cm 가량 파헤쳐 모래를 거르고 공기를 쐬어 준다. 이른아침의 수영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파편이나 휴지를 깨끗이 청소해 주며 또 모래에 공기를 쐬어 줌으로써 세균 감염의 위험을 줄인다.

“비치콤버(Beachcomber)”라 불리는 이 청소기계는 기름 제거용 장치와 해양 소독장치를 생산하는 해양오염방지기구

전문생산업체인 영국의 비코마사(Vikoma Ltd)에 의해 개발되었다.

앞쪽에는 깊이 10cm까지 닿을 수 있는 칼날이 서 있으며 컨베이어에 의해 운반된 모래와 파편들이 쇠창살 위로 쏟아져 굵은 체에 의해 쓰레기들이 걸러진다. 이들 쓰레기들은 다시 컨베이어로 운반되어 유압으로 작동되는 쓰레기처리통 속에 모아진다.

이 기계 장치는 어떤 종류의

현대식 트랙터에도 연결가능한데, 전력은 트랙터의 전기장치에 부착된 유압 펌프로 공급된다.

○문의 :

Vikoma International Ltd,  
88 Place Road, Cowes,  
Icle of Wight,  
PO31 7AE England.  
Tel : 0983 296021,  
Telex : 869111